

# 한·미 FTA를 보는 몇 가지 시선

>>> [ 취재 \_ 이미지 ]



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한-미 FTA 체결에 더욱 앞장서고 있는 사태를 꼬집으며, 한·미 FTA는 국가와 국가간의 합리적 무역의 형태가 아닌, 소수의 세계적 재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풀어, 오히려 극빈자를 양산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2001년 한국과 미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4년 후의 한국은 전체 농업 생산액의 45%에 해당하는 약 8조9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 “한·미 FTA는 양극화 심 풍경 하나 화시키는 사대적 외교”

지난 3월 6일 이른 10시, 외교통상부 앞에 농축수산업계 대표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머리에 띠를 두른 비장한 표정의 젊은이들도 준비해온 피켓을 높이 올렸다. 그날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양국 비공식 사전준비협약이 있는 날이었다.

농축산업계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명확한 준비 없는 한·미FTA를 반대했고, “줄속적인 한·미FTA의 추진은 전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농민단체의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는 정부

## “한·미 FTA는 태평양 가 로지르는 전용고속도로”

지난 3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사의 기업 및 단체대표들 대상으로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GDP 증가 효과는 135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를 “연간 1인당 지갑에 30만

원씩 더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비유했다. 10만 4천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대미수출은 최대 462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며,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 투자도 최대 96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중 본부장은 최근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는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졸속협상’이라는 향간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2003년에 만든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의 수립단계부터 한·미 FTA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고, 작년 상반기에는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정부 차원의 한·미 FTA 예비협약, 양국통상장관 간의 협의 등 수년간에 걸친 검토과정을 통해 협상 출범에 합의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우리는 미국과의 FTA 추진을 전략적이고 자주적으로 선택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글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또 “한·미 FTA 추진은 우리 기업을 위해 한·미 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전용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피력했다.

### **조목조목 이해관철을 따지는 미국 이익단체**

지난 3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열어 협정에 반영시킬 각 경제부문별 여론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미국의 농업단체들은 쌀을 포함한 모

든 농산물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이 아니라 모든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업과 업계단체 대표들은 통신, 법률, 금융, 회계, 컴퓨터 등의 서비스업은 물론 제약, 농업, 자동차,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서 예외 없는 개방과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심지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국적’에까지 쏟아진 관심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반면 미국은 해운서비스업의 개방을 꺼리고 있으며, 섬유·의류 산업에 대해서는 고관세의 무역장벽을 지키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이미 자유무역협정의 선행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미국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적용 유예, 의약품 값 산정 기준 개선을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요컨대 미국의 각 기업과 이익단체들은 끊임없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그들의 약점은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고, 그들의 강점은 최대한 발휘하고자 주도면밀한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 **말할 의지 상실한 채, 장외로 나가는 한국 이익 단체**

지난 2월 2일, 외교통상부가 주최한 ‘한·미 FTA 공청회’. 모든 사전협의는 끝난 채, 의식행위



## 특별취재

로 각 단체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나온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표하던 농민단체들은 끝내 공청회의 정식 진행을 무산시켰다.

이후 각 농축산업관련단체장들은 긴급히 “한·미 FTA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범국민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미 FTA 1차 예비협상 개시에 맞추어 지난 3월 6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이들 농축산업관련단체장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최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있는 협상을 이해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야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같은 날 서울 인사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다.

지난 UR협상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장원식 교수는 “협상은 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협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은 “FTA를 통한 개방은 국민과 후손에 대한 의무”라고 말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말을 문제 삼으며, “준비없는 줄속치리를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시종일관 침통한 표정을 보이던 정일영 교수는 “중잡을 수 없고, 도깨비한테 홀린 기분”이라는 말로, 최근의 한·미 FTA협상에 관한 일련의 논의에 대해 소감을

말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보완이 아닌 근본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국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받는 활동을 전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압력이 아니라 국내 내부의 문제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단체 대표자회의를 통해 “한·미 FTA는 우리 농업과 특히 축산업을 말살시키는 잘못된 정책결정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한·미 FTA 협상을 전제로 한 민간대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우리 축산단체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왜 우리의 단체들은 장외를 택하는가?

무엇이 세련된 협상을 가로막는가?

지금의 갈등은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는가?

무엇이 협상을 조급하게 만드는가?

진실로, ‘국가적’ 이익은 어디에 있는가? ㉞

